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1 - 9절)

### 지상 설교

여호수아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중에 3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번은 백성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6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하리라"(7절),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9절)는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들의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 1.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2절).

여호수아는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옛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교만죄, 가인의 시기심,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죄, 가롯 유다의 배신,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죄가 그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3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그 곳에 사는 가나안 7족을 멸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7족은 불신과 불의와 불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악을 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8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talk about), 주야로 묵상하며(think about it),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 행하라(do it)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가나안 소산을 먹는 시간부터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대비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오늘 우리교회와 국가에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변치 않고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했으며 초자연적인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했습니다.**

성도의 생명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 2. 인정받는 지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인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 받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 ① 여호수아는 과거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 27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터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배웠습니다(출17:8 이하).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몹시 싫어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출 24장). 여호수아는 그의 과거에서 진리를 신실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 ② 여호수아는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 10명은 가나안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은 저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고 지혜와 권위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 ③ 여호수아는 객관성 있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말씀(민 32장, 신 3:18-20)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확증한 후에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99%가 성경적 객관성과 1%의 인간적 주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나머지 1%까지도 성경으로 교정 받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 ④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5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지도자를 따랐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교회와 국가에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변치 않고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했으며 초자연적인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같은 모습을 본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오르간 봉헌 및 국제 오르간 심포지움 8대 장로 임직

심포지움: 11월21일(금) ~ 22일(토), 오르간 봉헌 · 장로 임직: 11월23일(주) 찬양예배 시간

1997년 당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후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 속에 독일에서 제작되어진 파이프 오르간이 지난 봄, 교회에 도착하여 여름철과 가을철에 걸쳐 조립을 하고 수많은 시험을 거쳐 마침내 서울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되는 11월23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또한 교회는 오르간 봉헌을 기념하며 '국제 오르간 심포지움'을 11월21일(금) - 22일(토) 이틀에 걸쳐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제오르간 심포지움에는 미국 Julliard 음대의 Gerre Hancock 박사와 미국 Wheaton 대학 Edward Zimmerman 박사, 우리교회 파이프 오르간을 설계, 제작한 독일 Klais 사의 Phillip Klais 사장 그리고 광동순 박사(연세대) 이미경 박사 등 국내외 저명한 파이프 오르간 관계자들이 강사로 서게 되며 오자경 박사(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2부예배 반주), 이성심

박사(서울신대 강사, 3부예배 반주), 이상미 선생(고신대 강사, 1부 예배 반주), 오신욱 선생(평택대 강사, 찬양예배 반주), 홍성훈 선생(서울교회 오르간 자문위원, 오르간 마이스터) 등이 통역 및 안내를 맡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거듭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스런 감사의 날을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또한 23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 중에는 8대 장로로 피택된 후 훈련을 받던 피택자 6분이 임직을 하게 된다. 이 분들이 가이오 장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교회와 성도를 내 몸 같이 아끼는 장로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오르간 리사이틀

21일(금) · 22일(토) 저녁 7시  
미국 줄리어드 음대 행곡 교수와 휘튼 대학의 짐머맨 교수 그리고 이미경 박사의 오르간 리사이틀이 21일(금) · 22일(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 많은 분들과 함께 초겨울밤 음악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성경쓰기 -5회) 정정희 권사(7교구)
- (성경쓰기 -1회) 박명석 권사(12교구)
- (성경통독 -3독) 윤봉준 장로(9교구) 김명화 집사(9교구)
- (성경통독 -2독) 박창희 권사(5교구)
- (성경통독 -1독) 황규영 성도(1교구) 정유선 집사(2교구)
- 이갑연 집사(2교구) 김현정 권사(3교구)
- 남은실 집사(4교구) 나소연 성도(4교구)
- 이영희 권사(5교구) 이민화 권사(교구)
- 하정자 권사(7교구) 박예찬 성도(중등부)
- 이영자 권사(11교구) 김정호 집사(12교구)
- 이인선 권사(12교구) 송성식 집사(12교구)
- 정희순 권사(12교구) 이상 20명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태신자 초청 충동원 전도주일 · 주일 I, II, III 부 예배 후 환영행사기저

오늘은 우리가 2003 사명자대회를 시작하여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를 해오던 태신자를 초청하여 천국잔치를 갖는 날이다. 오늘 초청된 태신자들은 전도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 시간 중간단한 소개 시간을 갖고 예배 후 새가족부실

에서 환영행사 및 다과를 갖게 된다. 우리교회 문을 열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한가족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다.

2003 사명자 대회 24시간 연속 기도표 (11월 17일 ~ 11월 22일)

구분	시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새벽기도회	11. 17(월) 10 교구	임규현 노문환 여상한	임규현 노문환 여상한	임규현 노문환 여상한	임규현 김태기 이남성	임규현 김태기 이남성				서경애 전용순 강민희	윤찬오 홍재식 이안순 주환인	윤찬오 홍재식 13-5 이미숙	김일석	이영희 민순구 김종자	이영희 민순구	이영희 민순구 신정순	진 톤 김경희	진 톤 김경희	진 톤 김경희	이복규 한명순	이복규 한명순 윤봉준	김희진 이복규 한명순	이경란 서경애	서창원 이기숙 이종창 정명숙 서경애	서창원 이기숙	
	11. 18(화) 11 교구	이태훈 장병무 정동호	이태훈 장병무 정동호	이태훈 장병무 정동호	이태훈 홍정호 박경준	이태훈 홍정호 박경준				김정희 강민희 전용순	이현숙 원복순 국산옥	박이선 정수진	송미지 하숙	한금희	조정옥 임명숙 오성애	정연택 김양숙 전배호	함정희 김영숙	송희숙 이명희	장정실 김사무엘 손성실 13-11 이순희	정정자 이흥기 이옥희 김선미	윤봉준 김혜영	곽 숙	서경애 이승우	서경애 노문환 장정환 왕정래	나옥녀	
	11. 19(수) 12 교구	김희정 최종시 장양일	김희정 최종시 장양일	김희정 최종시 장양일	김희정 김대호 김현영	김희정 김대호 김현영				전용순 이선희 심재슬 서경애	전용순 이남북 주환인	나기태 전인화 유성임 석상화 양호선	전용순 나기태 김인화	수요1부 예배		정경자 김계순 방승희 이남북 김종자	김인숙 김영식 방승희 신정순	김선희 배영애 최순애	이재윤 이용자 주경자	김명숙 서중숙 이민화 김정호 신경희	김정호 신경희	수요2부 예배		서경애 최광성 이정연	김석범 이은희 서경애	장하원 박승희
	11. 20(목) 13 교구	서명철 윤봉준 오유식	서명철 윤봉준 오유식	서명철 윤봉준 오유식	서명철 성준경 김종근	서명철 성준경 김종근				전용순 김연화 강민희	배병이 주환인	박영자	하옥봉	임승자	김일순 김종자 김계순	이인숙 김종자	최현인	고완순	박정순	조영자	황규영 김지숙 김정애 전인숙 안정배 장성래	이덕희 박현영 노병욱 김명자 윤봉준	김희진 박두영	양춘경 서경애	임옥균 서경애	하영수
	11. 21(금) 14 교구	박금실 김영준 김규태	박금실 김영준 김규태	박금실 김영준 김규태	박금실 이영기 양인수	박금실 이영기 양인수				서경애 전용순	주환인 14-6	김인순	정경자 우경자 이은정 김은희	정경자 김정현	김민순	14-7	김영식	14-11	14-12	윤용미	신정순 윤봉준	금요기도회		서경애	서경애	
	11. 22(토) 6 교구	손재영 김상철 이학주	손재영 김상철 이학주	손재영 김상철 이학주	손재영 왕경래 송인권	손재영 왕경래 송인권				윤숙희 노정숙 김상철 심재슬 전용순	윤숙희	윤숙희	김계순 여동옥	김경옥 김정란 김복숙	황금희	정경자 유율상 김효순 서명조	최일훈	김병용 김성은	정정숙	정정숙	장양일 김사라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

# 그때가 들리는가! 보이는가!

12년 전, 교회 창립 50일 전부터 눈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드디어 서울 교회가 세워졌다.

새벽부터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너나 할 것 없이 신을 벗은 서울교회의 거룩한 지체들, 작은 종들이었다.

자기의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교회 내 스스로 기관과 부서가 정해지고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때 기도의 합성이 들리는가! 열면 봉사의 몸짓이 보이는가!

그때를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민족과 국가 교회와 가정의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50일간 연속 기도로 기도하는 기간 중 37일째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나팔이 울려졌다.

천사도 흠모하는 새벽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차량부 지하에서부터 안내, 방송, 교구 목사님들의 일사불란한 환영의 대열 속에서부터 사명자 대회의 긴장된 충성심이 넘쳐 있었다.



미리부터 흐르고 있는 피아노 선율 속에서 은은한 향기 가운데 성전을 감싸 안은 채, 이미 성령님이 임재 하시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았다.

4시부터 준비한 찬양 대원들의 뜨거운 열정은 하늘나라가 이땅에 임한 시간이며 들어오는 찬양대 대열은 새벽을 비추는 한 줄기 빛들이었다.

원근 각처에서 삼삼 오오 짝을 지어 속속히 채워지는 성전 안은 어느새 준비기도로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으며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 대회는 주체 찬송 270장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 하겠네"로 시작되었다. 행동강령과 공동 기도제목을 함께 드린 후,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한 성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만 사명을 다하며 앞으로만 달려가는 서울교회에 믿음의 용사들이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순례자의 방향과 비전을 따라 땅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새벽 기도는 무르익었다.

소망에 찬 서울교회 성도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신동기(편집부)

사명자 대회-24시간 연속 기도

# 낮추시고 또 낮추시어...

강민희 집사(교구)



너무도 부족하고 지은 죄가 많건만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수없이 넘어질 때 하나님은 부족한 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 열 명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의인 열명을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공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를 섬기게 하여주신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섬기게 하시어 보석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자라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시어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하고 가슴이 북받쳐 올라 주님께 이 생명을 드린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자녀에게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어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온유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배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여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워 주시어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어둠을 밝히는 야간전도

70인 전도대에 야간 전도팀(팀장:김금준 집사)이 결성되어 3주전부터 매주 수요일 2부 예배가 끝난 후 한티 공원에서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전도 활동을 하는 야간 전도팀은 첫날 38명의 결신자를 얻는 수확을 거두었다.

야간 전도의 대상은 학원을 다니는 중고등 학생이 주류를 이루며, 마침 이곳이 버스정류장 앞이라 퇴근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공략 대상이다. 야간전도팀은 전도하는 시간이 저녁을 먹은 후 약간의 시장기가 있을 시간인 것을 감안하여 행인을 대접할 컵라면과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다. 행인을 타자로 안내하고 라면이 익는 동안 또 차를 준비하면서 인적 사항을 자연스레 묻고, 4명리 등으로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해진다고 한다.

팀장인 김금준 집사님은 "외곽이 두터워지기 전에 공략하라"는 전도대의 교육이 무색하

지 않다며 나이를 먹은 만큼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도록 이들을 향한 전도가 더욱 왕성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진행 중인 70인 전도대의 7기 교육을 받으며 야간 전도대에 투입된 이영숙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교회학교 교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날이 갈수록 전도에 대한 마음이 절실해져 이번 전도대 교육을 받고 처음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데 처음에는 불특정다수를 향해 복음을 외치는 일이 다소 부담스러웠으나, 처음 전도지를 내밀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에 큰 힘을 주셨다고 한다. 이 사람은 30대 학원 강사였는데 본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었다. 전도지를 내밀며 차를 권하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쉽게 탁자에 앉으며 요즘 부쩍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입을 통해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고 한편으론 전도를 즐기게까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므로 전도의 문을 쉽게 연 이영숙 집사님은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나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놓칠 수가 없다고 했다.

한티공원을 뒤로하고 가로등 아래 차려진 차탁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야간전도팀의 활동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선은 2시간여를 길에서 있어야 하므로 곧 추워질 날씨에 추위를 이길 방한용 잠바도 있어야 하겠고 무한정 공급해야 하는 컵라면과 차를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야간전도팀의 영육간의 월동준비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을 바란다. 허숙(편집부)



살롬경로대학을 마치고

# 나의 하나님

서귀용 집사(8교구)

2003년 하반기 살롬 경로대학을 종강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강사님들을 초빙하느라 수고하신 학감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체조시간에는 굳어진 온 몸을 흔들며 웃기도 하고 손뼉도 치며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오정수 장로님의 특별 강진이 있었습니다. 12년 전 창립하여 한티공원을 배경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우뚝 세워진 간증말씀에 모두 감사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선생님들은 우리를 친부모 모시듯 공손히 대해 주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앞으로 2004년 살롬 경로대학에 더욱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여 서울교회부서 중 으뜸되는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모두의 건강을 기도하며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대학(다니엘서 수강을 마치며)

#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로 ...

유명희집사(13교구)

목요일 신세벽, 새벽기도회를 마친 성도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6시부터 7시까지 602호에서 오정식 목사님(다니엘서)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아침을 깨우며 원근 각처에서 모인 장로님으로부터 성도님에 이르는 약 30여명의 수강생들은 성도들이 알기 쉽게 강의하는 다니엘서의 내용에 충격을 받은 듯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간다.

어떤 형편과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과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예언의 말씀은,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심에 등골이 서늘할만큼 경각심을 갖는다.

수업이 끝난 후 김금준 집사님은 정말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 말씀의 위대성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하며, 부인 이 집사님은 응답 받는 기도의 핵심은 회개의 기도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또한 처음으로 성경공부를 한다는 한 성도는 계속 입을 다물지 못하며, 성

경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예언의 성취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는 게 너무나 엄청나다고 말하며 진작 성경공부를 시작했으면 하고 아쉬워 한다.

이제 10주간의 강의를 이번 주로 끝났다. 28명의 많은 수강생이 수료를 하는 다니엘서 강의에 말씀을 쉽게 대언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수업을 마친 성도들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마지막으로 천사가 다니엘에게 명령한 "네가 정말 가야 할 길로 가면 서 네 삶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본다.



주부대학을 마치며

# 연속한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



### 양에스데(주부대학수강생)

노오란 은행잎을 사그락 사그락 떨어뜨리며 나무는 이제 겨울을 알립니다. 거기 그대로 서서 꼬박꼬박 제 뉘를 해내는 자연을 보며 잠깐 지내온 한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봄, 가을로 열린 서울교회 주부대학에 동참하게 됨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은총이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평생교육의 시대를 살면서 다양해진 주부의 역할과 바쁜 일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그대도 말씀과 지혜, 지식의 조화로 믿음의 향기를 지니고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주부대학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천국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하는 주부대학에는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있어 주역 주민과 믿지 않는 이들이 자연스레 주님께 인도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잔잔한 감동과 때로는 전선의 스파크처럼 심령을 일깨워 주신 윤영국 목사님의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으며 2부

주제 강연과 맛깔스럽고 푸짐한 식사, 3부 특별활동(영어, 꽃꽂이, 종이접기, 가정요리)으로 이어지는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 중남미 문화원, 국립현대미술관, 도예문화원 등 문화체험 현장학습도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학감 장로님의 수고와 봉사, 그리고 큰 언니처럼 푸근하게 챙겨주시던 주부대학 스텝진들의 기쁘게 섬기며 봉사하시던 겸손한 모습들은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귀감이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배움과 봉사의 과정들로 인해 우리 주부들이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행하며,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인하여 잠언 31장의 연속한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주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하고 발전하는 주부대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2003 사명자 대회 태신자 명단

이상필 김종태 김양수 김장수 정탁운 김성진 이철봉 장선미 배수진 고영희 방성순 김동필 서현우 권형우 이상필 김중태 김양수 김장수 정탁운 김성진 이철봉 장선미 배수진 고영희 방성순 김동필 서현우 권형우 이근숙 남영효 이병욱 남은성 남재우 성남용 오영자 성수연 이을동 이병하 한해경 안명란 고영애 백옥분 김학주 김순욱 윤영옥 오태환 류라경 오경래 원재심 강희성 천우자 강연자 김은숙 윤형준 김경애 박은영 남궁훈 박선숙 석영환 이광훈 김성신 김영환 박영하 김민석 김태영 강봉래 조운행 장동숙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7일(월)속초중앙교회 목사위임 및 권사 집사 임직식 설교를 한다.
- 득녀: 박세일 집사·이소연 집사가 가정 10월 29일 박원탁·이미영 성도 가정 11월 7일(미국에서)
- 이사: 김용수 윤영미 성도(11교구) 송파구 석촌동 56-7 301호 전화: 415-7162
- 금주의 식사: 나종영 집사·이은희 권사 가정 (차려결혼식을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방송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케이블 CH 42 금 오후 7시
- 기독교 방송 위성 TV CH 162 수 오전 7시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3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사명받고 사명따라 행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국제 오르간 심포지움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